

자연 가까이 사랑 가까이

2016 SPRING K eco VOL.24





싱그러운 봄내음 가슴을 설레게 하는 꽃의 향연

빛소리에 설핏 잠이 깨었다가 일어나 보니
세상은 온통 노랗고 붉은 꽃의 물결
술술 불어오는 바람 맞으면서
푸른 하늘 아래를 걷고 있으면
따뜻한 봄의 햇빛이 화창한 아침을 반겨 주네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고 만족할 수 있는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가족 여러분!
봄비에 겨우내 묵은 때를 씻어 내고
봄별에 퐁퐁 언 땅 속에서 푸른 새싹을 틔우는 봄이 왔습니다.

혹한의 추위와 번덕스러운 환절기를 거치면서도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는 공단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 11일은 흙의 날,
3월 22일은 물의 날이었습니다.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토양과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단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익숙한 것의 결별이고
그래서 변화는 아픔이자 성장이기도 합니다.

공단의 모두가
변화의 아픔과 성장을 거치고 일어나
올해도 만족할 수 있는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합시다.
행복하고 즐거운 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

CONTENTS



Special Theme **그린으로 가는 길**

- 06 **프롤로그**
- 08 **Theme Focus**
우리나라 토양 오염의 실태
- 12 **Theme Report**
생명의 땅 희망을 얻다
- 14 **Theme Interview**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장 전기석

Section 1. **바르게 가기**

- 18 **지구사랑수첩**
'탄소 없는 섬' 가파도를 통해
영글어 가는 제주도의 푸른 꿈
- 22 **나는야, 지구환경지킴이**
모기와외의 전쟁 승리할 수 있을까?
- 24 **내가 Green 세상**
최열 환경재단 대표
- 28 **푸루와 그루의 청렴이야기**



Section 2. 함께 가기

- 30 열정 UP! 행복 UP!
축구부 VS 야구부
- 34 바라보기
사내 연애 이야기
- 38 가자! 세계로!
철새의 여정, 나의 여정
- 40 사랑의 메신저
칭찬 릴레이
- 42 직장인 인문학
- 44 함께 하는 세상
수도권서부지역본부 1사1하천 운동

Section 3. 웃으며 가기

- 48 건강한 삶
알레르기 없는 봄 어려운 걸까?
- 50 맛있는 삶
봄나물 춘곤증을 잡다
- 52 에코스페이스
영주 선비촌
- 56 K eco 뉴스
- 58 독자 참여
- 59 행복 나눔

한눈에 보는 토양 오염



1 토양 오염의 원인은?



건강한 토양은
삶의 터전과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렇기에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지하수처 전기석 처장 인터뷰 중

2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은 얼마나 위험할까?

카드뮴

현기증, 구토, 폐부종 발생

구리

정신이상, 간경련, 피부궤양 발생

비소

식욕부진, 구역질, 피부암 발생

납

체중감소, 권태감, 위장장애 발생

니켈

발암물질로 폐에 손상을 입히고 후두암 발생

아연

심한 피로와 환각증세, 경련 발생



3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한 구) 장항제련소 정화사업의 특징은?

국내 최대 규모의 토양 정화사업

오염 기여도 평가를 통한 정화 책임 분배

위해성 평가 첫 도입

우리나라 토양 오염의 실태

토양 오염은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과는 다르게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토양 오염 불감증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마구잡이로 땅에 묻거나 쌓아 두는 행위를 일삼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양 오염 실태는 어떤 상황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soil

산업과 생산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토양 오염

토양 오염은 공장의 폐수, 가축의 분뇨, 농약의 과다 사용 등 다양한 산업과 생산활동에 따라 각종 유해 물질이 토양에 주입되어 발생한다. 토양 오염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식물, 즉 우리가 섭취하는 농산물이 토양에 있는 유해한 물질을 흡수함으로써 이것을 먹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토양 오염의 원인은 다양한데, 농작물을 기를 때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살포하는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오염과 미량원소 특히 카드뮴(Cd), 아연(Zn) 등을 함유하고 있는 비료로 인한 오염이 대표적이다. 도시 근방에서는 산업 폐기물과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오염도 심각하며, 화석 연료의 소각에 의한 대기 오염 물질이 토양에 떨어지면서 이로 인한 오염이 생기기도 한다. 광산 및 제련 활동에 의해 발생된 광석 더미와 폐수 방출로 인한 오염도 문제다.

가동되었던 공장이 중단되어 일어난 토양 오염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1982년부터 1991년까지 금속제련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일부가 회사의 부도로 인해 공장 부지에 방치되었던 화석키메탈 사건, 비스코스 섬유를 제조하던 원잔레이온의 도농 공장을 매입한 모 건설회사가 공장 부지에 다량의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한 원잔레이온 공장 부지 토양 오염 사건이 여기에 속한다.

전국 주유소 161곳, 토양 오염 적신호

전국 161곳에 달하는 주유소에서도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관리 강화 및 정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14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것이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2,039곳이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 오염도 검사(정기·수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92곳(전체의 36.7%)으로 이중 205곳의 시설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석유저장소 등 산업시설이 24곳, 기타시설이 19곳을 차지했다.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중에서는 1곳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pollution

주유소의 경우는 배관 누출이 19곳(76%)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4곳(16%),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2곳(8%)으로 나타났다.

표. 누출검사 결과 및 부적합 사유

단위 : 개소

구분	누출대상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			
			계	탱크	배관	탱크·배관
총계	1,515	1484	31	7	21	3
주유소	1,150	1125	25	4	19	2
산업시설	257	253	4	1	2	1
기타	138	136	2	2	0	0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 정화 조치 등을 명령했다. 정화 명령을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 특히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누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클린주유소 제도를 활성화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토양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폐석탄광산의 중금속 토양 오염 심각

예전 석탄을 캐던 광산의 주변 지역은 산성 광산 배수(AMD: Acid Mine Drainage), 폐석·갱내수 등으로 인한 토양·수질 중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예로 1995년 보도됐던 폐광산 주변인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의 농경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일을 들 수 있다. 이 일은 아연광산 폐광 후 남겨진 광석 자석더미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이 주변 및 하천 하류 지역을 오염시킨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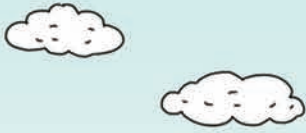
이 같은 폐광산의 위험성은 2015년 12월 28일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환경부가 2014년 폐석탄광산 7곳의 오염실태를 정밀조사한 결과 태백과 영월 등 강원도 내에 존재하는 폐석탄광산의 중금속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토양 정화가 필요한 지역은 조사 면적의 46%인 33만 7,660㎡에 달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태백의 함태탄광, 함태-한남탄광, 동해-삼창탄광 등 3곳과 영월의 옥동탄광, 옥동-선진탄광, 후천탄광, 동원-덕일탄광 등 4곳이다. 이들 탄광 중 함태-한남탄광을 제외한 6곳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과 함께 수질 오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농경지가 비소, 아연, 구리 등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정화가 필요한 광산도 7곳 중 5곳이나 됐다. 특히 옥동광산은 조사지점의 50% 이상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되면서, 토양 오염 대책기준을 넘는 농도의 비소도 발견되어 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옥동-선진탄광을 제외한 6곳은 갱내수(갱 안의 물) 수질 오염도 있었다.

이 같은 폐광산 내 오염은 폐갱구에서 배출되는 pH5 이하의 산성 배수와 중금속으로 인해 하천 바닥이 붉거나 하얗게 변하는 적화 또는 백화 현상이 발생시킨다. 적화 및 백화 현상이 발생한 하천은 물고기 서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하천에 인접해 있는 농경지로 중금속 오염이 계속 확산될 수 있어서 시급한 정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 부처와 해당 지자체 등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주민 안전조치와 광해(채굴 과정에서 생기는 유독 가스나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폐수)가 주는 피해)방지 사업 추진 등을 요청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 관리에 힘 쓸 계획임을 밝혔다.





생명의 땅, 희망을 얻다

심각한 중금속 오염으로 힘들어하던 충청남도 서천군의 구) 장항제련소 부근 토지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주관한 대규모 토양 정화사업의 결과이다. 1차 토양 정화가 완료된 그 과정을 따라가 보았다.

토양 정화 기술

중금속에
신음하던 토지

구)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설립되어 1989년 운영이 종료되었다. 53년이라는 오랜 기간 제련소가 운영되다 보니 이로 인해 발생한 중금속으로 토양 오염 등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구) 장항제련소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호소했고, 정부는 2009년 7월 31일 '토양 오염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오염된 땅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구)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정화

구) 장항제련소 토양 정화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됐다. 추진된 1단계 사업은 제련소 반경 1.5km~4km에 이르는 비매입구역 22만 5,784m²를 정화하는 것이었다. 오염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방법은 3가지로 진행했는데 토양세척법(세척제를 이용한 토양 정화), 동전기(動電氣)법(전기 자극 토양 정화), 식물재배법(오염지역에 정화식물 식재)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세계적인
대규모 사업

토양 정화업체 성숙

구) 장항제련소 토양 정화사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사업으로 대기업 4개사, 중소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토양 정화 시장 축소로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양 정화업체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2단계 사업

위해성 평가 첫 도입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공단은 현재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 비매입구역보다 오염이 더욱 심한 제련소 반경 1.5km 이내 구역이 정화된다. 특히, 이번에는 오염 물질 또는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해가 발생하고, 어떻게 해가 발생하는지, 피해의 발생 규모를 평가하는 위해성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는 구) 장항제련소 주변의 식생을 보전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1단계 사업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장 전기석

효율적인 토지와 지하수 관리를 위해 앞장서다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 토양지하수처는 토양정화를 비롯해 전국의 군사기지 환경조사, 위해성평가,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 구축 사업 등 우리나라 토양과 지하수 환경 보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이다. 현재 토양지하수처를 이끌고 있는 전기석 처장을 만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구) 장항제련소 정화사업을 비롯한 토양환경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인류에게 소중한 의미를 지니는 건강한 토양

“토양 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오염을 인지했을 때는 범위가 아주 넓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건강한 토양은 삶의 터전과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소중한 자연자원입니다. 그렇기에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수와 토양 전문가인 전기석 처장은 깨끗한 토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담당하고 있는 토양지하수처는 토양 환경 조사·평가 및 복원, 토양 환경 검증,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지하수 오염 예방을 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그는 현재 토양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지하수의 수질이 어떠한지, 오염에 따른 복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다.

주민과의 협조가 관건이었던 구) 장항제련소 정화사업

전기석 처장뿐 아니라 공단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느낄만한 사업이 바로 구) 장항제련소 정화사업이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토양 정화 사업이었던 구) 장항제련소 정화사업은, 공단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빚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항제련소는 오랫동안 제련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오염물질을 대기를 타고 날아가서 토양 위에 쌓이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 새로운 흙이 위에 덮여지면서 오염물질은 토양 속으로 들어가 점점 확산돼요. 지속적으로 오염된 땅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가 힘을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지만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가 주민과의 협조였다. 사업 착수 초기에 제련소 주변 지역의 오염으로 환경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공단에 대한 불신감을 여지 없이 내비쳤고, 오랫동안 살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대회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별 면담도 진행했고, 토양 정화사업을 하는 당시에 발생하는 민원들도 즉각적으로 현장 조치를 했죠. 이런 노력 때문인지 시간이 지나니 주민들도 우리에게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전기석 처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곳의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토양 정화를 하는 것이기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국내 토양 정화 기술이 진일보하다

구) 장항제련소 주변의 토지는 대부분이 농경지였다. 이 때문에 진흙형태로 뭍침 현상이 발생하여 정화 설비의 효율이 저하되기도 했다. 이에 공단과 시공사는 기술교류와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로 설비를 개선하여 정화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공단은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 정화 사업을 통해 국내 토양 정화사업의 기술, 환경 개선 및 기업과의 상생 노력 등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공단이 토양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미지를 높인 것 또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장항제련소 정화사업을 통해 공단은 환경 전문가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할 수 있게 되었다. 토양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정부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공단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염여도 평가를 통해 정화책임 분배과정을 도입하기도 했어요. 구) 장항제련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1971년부터 민영화되었는데, 국가와 관련 기업이 정화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던거요.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기가 어려웠는데 공단에서 환경감식기법에





기반하여 정화책임을 객관적으로 분배하는 오염기여도 평가를 수행했죠.”

오염기여도 평가를 수행하면서 이를 토대로 국가와 관련 기업들 사이에 책임 비율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업비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밝은 미래를 꿈꾸다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발주물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업체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고 시장 수익성은 약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시장 진출 모색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석 처장은 구) 장항제련소 정화사업의 성과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사업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 현재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곳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기술을 토대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을 생각입니다.”

그는 현재 국가기반시설, 잠재 오염원 등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한 효율적 관리와 경제적인 사후 조치 분야 등 새로운 사업 영역 확장도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전문기관으로서 공단의 위상을 높여가는 의도에서다.

“기존 사업영역을 공고히하는 것만큼 향후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토양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화완료 부지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도입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전기석 처장은 토양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과의 상생 역시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토양 관련법 제도 개선이나 토양환경평가제도처럼 법률에는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더 늦기 전에 깨끗한 환경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정화사업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화를 하기 이전에 정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단의 모두가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토양과 지하수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관리와 보존이 더욱 중요한 분야이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그의 말에서 자신의 일을 진정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진중한 자세가 엿보였다.

탄소 없는 섬, 가파도를 통해 영어 가는

제주도의 푸른 꿈



가파도, 7월
신재생에너지 대체율 100% 달성

제주도,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 '순항'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와 가파도의 빼어난 자연 풍광이 맞물려 가파도를 찾는 이들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만 9,000명이었던 관광객은 지난 해 9만 4,000명으로 36%나 증가했다. 과거 국토 최남단 마라도로 가려던 관광객들이 배편을 구하지 못하면 가는 곳이 가파도라는 우스갯소리는 이제 옛말이 돼 버렸다.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 가파도

지난 3월 19일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한 모슬포항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를 가니 제주특별자치도가 2011년 세계 최초로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을 표방한 가파도가 모습을 나타냈다. 배가 가파도항에 닿기 1분 전까지만 해도 섬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섬의 크기(0.85km²)는 작았다. 느린 걸음으로 섬 전체를 둘러보는 데도 한 시간이면 충분할 정도였다. 산이나 구릉, 해안절벽 등은 찾아볼 수 없었고 평평한 섬 지대 가운데 자연과 어우러져 솟아있는 풍력발전기는 이곳이 '에너지 자립섬'이란 것을 말해 줬다.

모자가 날아가지 않게 부여잡고 있어야 할 정도의 세찬 바람(16m/s) 덕분에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육상이었다면 기준(14m/s)을 넘어선 바람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을 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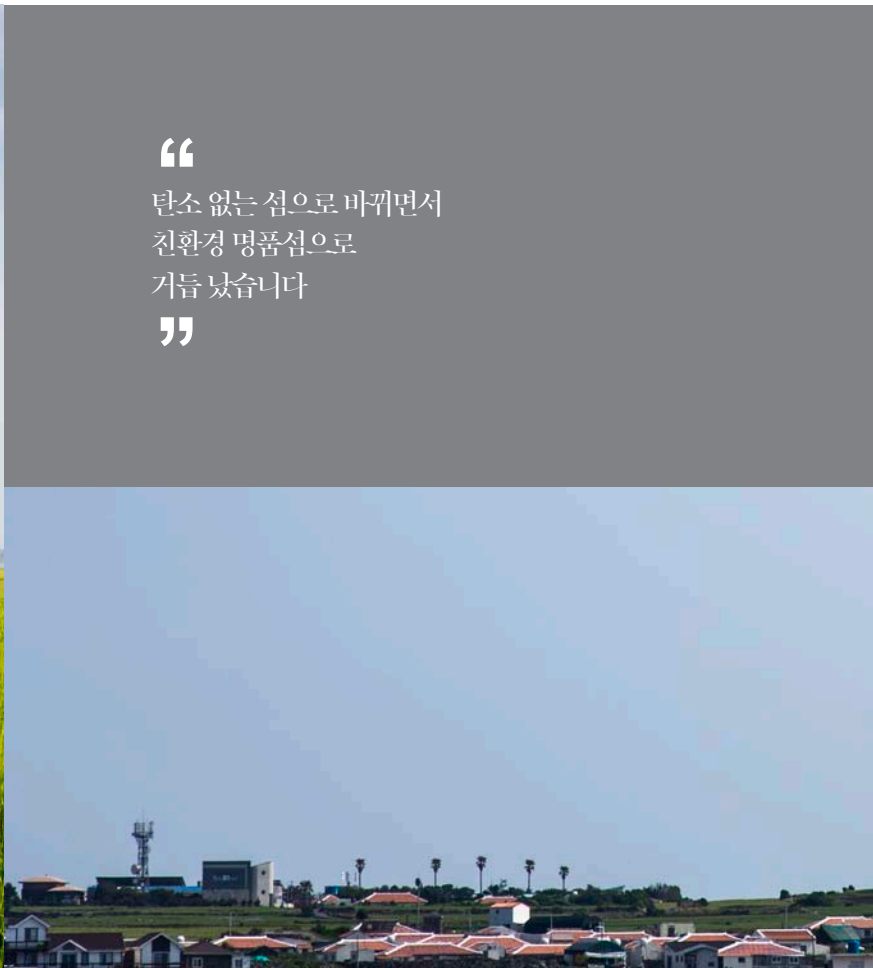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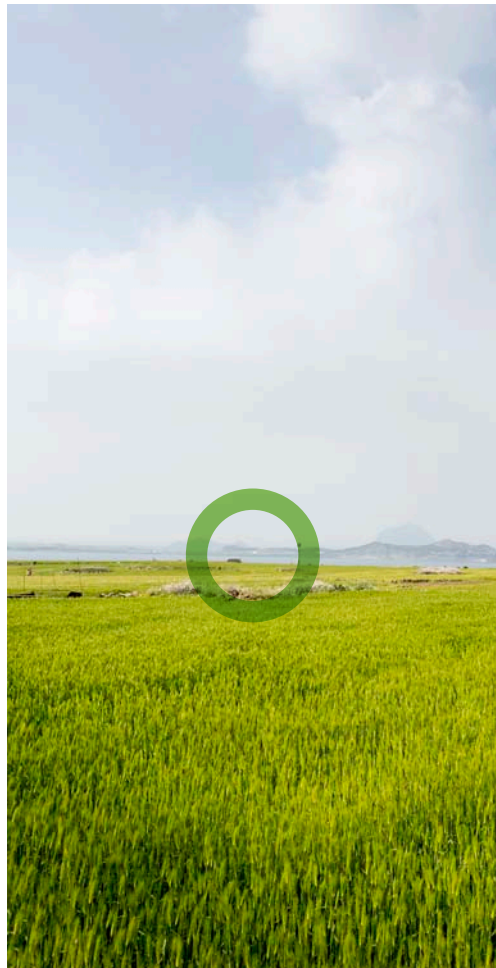
가파도는 현재 에너지 자립 중

김미영 제주도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 담당사무관은 "2기의 250kW 풍력발전기와 37가구의 3kW 태양광 발전소에서 이 섬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되고 있지만 현재는 전력 저장장치 용량이 1MWh 밖에 안돼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이 70% 정도"라며 "오는 6월 2MWh의 전력저장시스템이 추가로 설치 완료되면 7월에는 친환경에너지 대체율이 100%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은 디젤 발전 없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으로 24시간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섬의 126세대(245명)는 하루 평균 약 3,000kW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저장장치 용량이 1,000kW 수준에 머물러 부족분은 디젤 발전 전력으로 써 왔다.

제주도는 2011년 11월부터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118억원을 들여 가파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126세대 가운데 37가구는 전체 설치비(1,260만원)의 10%(126만원)를 부담해 3kW 태양광 패널을 집에 설치했다. 올 연말이 되면 태양광 패널을 갖춘 세대는 모두 48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다른 주요 탄소 배출원인 자동차는 전기차로 단계적으로 교체 중이다. 제주도는 가파도에 전기차 4대와 전기오토바이 5대를 보급했고 완속충전기를 3기 설치했다. 현재 가파도 내에는 전기차 외 트럭 등 9대의 차량이 있는데



“
탄소 없는 섬으로 바뀌면서
친환경 명품섬으로
 거듭 났습니다
”

이들 차량 역시 빠른 시일 내 전기차로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쓰레기 소각 시 탄소가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쓰레기를 섬 밖으로 옮겨 처리하는 방식으로 없었다.

전신주를 찾아볼 수 없는 섬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꿈꾸고 있는 제주도의 축소판이기도 한 가파도는 4월엔 푸른 물결, 5월엔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드넓은 청보리밭과 탁 트인 광경,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기 좋은 산책로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섬을 둘러보는 데 특이한 점은 전신주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따금 통신주만 눈에 띄었다. 탄소 제로 시범관광지 구축 사업에 주민 대표로 참여한 김동옥(61) 전 가파리 이장은 “전봇대가 지중화되면 미관상 좋을 뿐만 아니라 전신주가 쓰러져 전기가 끊기는 등의 태풍 피해도 줄일 수 있어요.”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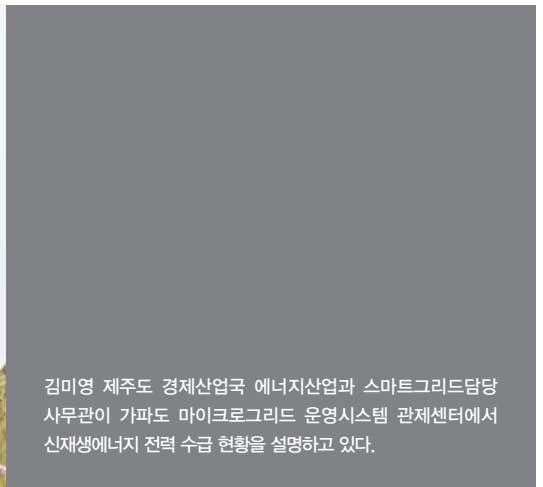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장점 많은 섬

가파도를 거닐다 마주한 가파초등학교 역시 소형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갖춰져 있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은 이들 설비에서 생산된다. 운동장은 친환경 섬의 초등학교답게 잔디가 고르게 돌아 있었다. 교사 수는 급식 교사를 포함해 11명, 학생 수 역시 11명. 자연과 어우러져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과 학급 학생들과 성적 순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도 없는 환경... 이쯤 되면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학교라 봐도 무방할 듯하다.

김 전 이장에게 ‘탄소 없는 섬’이 돼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물었다. “나쁜 점은 정말이지 없습니다. 좋은 점만 있죠. 가파도는 보리와 성게 등이 주 수입원인데 친환경 명품섬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들 상품의 가격을 다른 데서 생산되는 것보다 30% 정도 더 받습니다. 다른 곳의 성게가 6만원이면 여기 것은 8만원입니다. 매달 5만~6만원하던 전기료도 8,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가파도가 ‘탄소 없는 섬’이 되지 않았다면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가파도를 찾아왔겠어요? 친환경 섬 가파도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청보리밭과 돌담, 아자수 등이 어우러진 가파도의 자연 풍광 너머로 250kW급 풍력발전기 2기의 날개가 초속 16m의 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담당 사무관이 가파도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시스템 관제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 이 기사는 한국환경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 기 와 의 전 쟁

승리할 수 있을까?

모기가 옮기는 질병인 지카 바이러스가 올해 전세계를 휩쓸면서 보건당국이 부쩍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Dengue열과 지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흰줄숲모기'의 유충 방제 작업에 나서는 한편, 모기 분포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이면 집집마다 벌어지던 모기와의 전쟁이 올해는 정부 차원으로 커지는 모양새다. 우리는 과연 모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살충제 버티는 모기

모기 정복은 쉽지 않다는 게 보건분야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무엇보다 모기는 번식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암모기는 평생 일곱 번 정도 알을 낳는다. 그렇게 모기 한 마리가 낳는 알이 200~700개에 이른다. 하루 사이에 탄생하는 모기만 해도 수십억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모기는 생존주기가 1~2주로 짧은 만큼 살충제에 대한 내성도 빠르게 갖는다. 살충제를 맞고도 용케 살아남은 모기가 일주일만 지나면 수백 마리의 후손을 남긴다.

질병관리본부와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연구팀이 1992년과 2010년 광주에서 채집한 빨간집모기의 살충제 저항성을 비교했다. 현재 방역당국이 주로 사용하는 성분인 '델타메트린'과 '에토펜프록스'에 대한 모기의 저항성을 분석했는데 8년 만에 각각 385배, 2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엔 살충제 한 번 '칙' 맞으면 죽던 모기가 이제는 살충제 샤워를 하고도 가뿐하다는 얘기가. 1992년엔 빨간집모기 90% 이상을 죽이는 데 에토펜프록스의 농도가 0.053ppm(kg당 5mg가량)이면 충분했지만 2010년엔 11.876ppm이어야 같은 효과를 냈다. 인간은 그렇게 빨리 내성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모기약 성분을 덩달아 독하게 높이기도 쉽지 않다.

모기는 3,500종이 넘는데, 적응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 기존에 뇌염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는 모기는 야간에 활동하고, 도시 지역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 전에 방충망을 치고 도시의 물웅덩이를 제거하면 막을 수 있었다. 반면에 숲모기는 밝은 낮에 활동하고, 숲에서 활동한다.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만큼 방역당국은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독성물질 DDT 다시 꺼내나

모기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다. 위생이 좋아지고 살충제가 개발된 오늘날에도 이 정도다. 단 한 번 인간이

모기에게 반격을 시도해 승기를 잡았던 적이 있다. 맹독성 화학물질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에 살충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살충제로 만들어 쓰기 시작한 1942년부터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DT다. 그러나 1960년대 들면서 DDT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생명체에 축적된다는 점이 폭로되면서 1972년 미국 환경부가 DDT의 사용을 금지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따라 비슷한 시기에 DDT 사용을 중단했다. 현재는 말라리아가 맹위를 떨치는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DDT가 최근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모기와 전쟁을 벌이려면, 이 독성물질을 다시 꺼내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DDT를 마치 금기어처럼 여기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DDT가 독성물질인 것은 맞지만 넓은 대지에 농약처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외벽에 살짝 바르는 정도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모기에 노출을 줄이고 피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

문제는 모기가 DDT에도 내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 DDT에 저항성을 가진 모기는 이미 1950년대에도 확인됐다. 모기는 계속 진화를 거듭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DDT가 언제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1935년 5월 22일, 23일 이틀에 걸쳐 동아일보는 '우리 생활을 협박하는 해충을 퇴치합시다'라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모기를 막는 방법으로 △소극적이나마 모기장을 치고 △집을 지을 때 철망 문을 달 것을 제안했다.

오늘날은 어떨까? 올해 초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모기장을 잘 치고, 긴팔 옷을 입어 모기에게 물리지 말 것을 개인 대응 방법으로 주문했다. 결국 예나 지금이나 물리적으로 노출을 줄이고 피하는 게 최선인 셈이다.

※ 이 기사는 한국환경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환경을 살려 나라에 이바지하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 쓰레기 분리 배출, 합성세제 사용 자제, 농약 사용 자제 등, 지금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환경 관련 상식을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1호 환경운동가인 최열 환경재단 대표이다. 모두가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시절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한 최열 대표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았다.



운명처럼 필연으로 다가온 환경 운동

1975년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최열 대표에게 격변의 시기이기도 했다. 데모를 하다가 긴급조치로 붙잡혀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최열 대표는, 감옥에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책을 탐독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많으니 무엇이라도 해 보고 싶었어요. 전공인 화학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다가 환경 운동에 생각이 미쳤죠.”

당시에는 지금보다 환경 오염이 더 심했다. 매연을 뿜어 내는 차들과, 무분별한 합성세제 사용, 일회용품 사용이 많았던 탓이다. 최열 대표는 바로 이런 상황에 주목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공해 관련 책을 감옥에 넣어 달라고 부탁했더니 국내에는 그런 책 자체가 나와있지 않다는 대답을 듣게 됐거든요.”

다행히 사연을 듣게 된 일본 엠네스티에서 공해 관련 책을 최열 대표에게 제공해 주었고, 감옥에 있던 4년의 시간 동안 환경 오염에 관련된 책 250권을 읽게 된 최열 대표는 환경 운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책을 읽고 든 생각은 환경 문제는 그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기 오염이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기전문가, 과학자,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원인을 규명하고 영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 운동의 본격적인 신호탄, 공해문제연구소

1981년 공해문제연구소를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최열 대표는 환경 문제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접근이 아닌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장 먼저 공해가 심한 지역의 주민들부터 돕자고 생각했어요. 35년 전에는 환경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옆, 주택 옆에 공장이 들어선 상황이었거든요. 유독성 연기가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강으로 흘러 든 폐수가 심한 수질 오염을 유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농약이 몸에 안 좋은 이유와 농약을 많이 뿌렸을 때, 우리가 먹는 과일과 채소에 잔류농약이 얼마나 남는지, 주부 습진이 자주 생기는 원인과 주방 세제, 합성 세제로 인한 수질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한 사실을 알렸다.

“1988년 일본 동경에서 세계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때 함께 참석했던 인도네시아 대표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당시 인도네시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 나무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베어 가는 국가라고 말을 하면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소비 방식을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편리함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사막이 늘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열 대표는, 곧바로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운동을 전개한다. 그 결과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지침도 생겼고, 식당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공하는 것도 사라졌다.

어린이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다

“환경 운동을 하다 보니, 어릴 때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부터 어린이들 눈 높이에 맞춘 환경 책 출간과 환경 체험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캠핑과 국토순례, 체험교육이 주가 되는 어린이를 위한 학습을 시작한 최열 대표는 이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섬진강을 일주일 동안 걷는 체험을 하게 된 아이들은 강을 의인화해 ‘진강’이라는 친구로 인식하고, 그곳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캠핑이 끝난 후에 지속적인 편지를 보내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캠핑마다 여러 번 참여하는 어린이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환경을 알려 주고 싶었던 최열 대표는 이를 계기로 ‘최열 아저씨의 우리 환경 이야기’를 냈고,



책이 히트를 치자 ‘최열 아저씨의 지구촌 환경 이야기’를 펴 내기도 했다. 첫 출간 후 20년이 넘는 이 책은 아직까지도 재 인쇄를 거듭하며 많은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

“경희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나왔는데, 대학생들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어릴 때 제가 쓴 책을 읽은 친구들이 저자 사인을 받으려고 서있던 거였어요.”

그 이후 최열 대표는 아이들이 쓴 편지나 독후감을 받으면 반드시 답장을 해 주고 있다. 아이들이 환경과 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고마웠기 때문이다.

문화와 결합한 환경 문제

환경 관련 시위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 문제를 제시하던 최열



대표는 2002년 노선을 조금 바꾸었다. 바로 문화와 환경을 결합하기 위해 환경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시위를 너무 자주하면 사람들은 환경단체를 무슨 일만하면 반대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하기 쉬워요.”

이렇게 노선을 바꾸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환경영화제이다. 야생동물과 자연, 에너지 등 자연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알려 주는데 영상만큼 효과적인 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환경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최열 대표는 문화와 환경문제를 결합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환경체험전, 환경 사진전, 환경음악회 등이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과 협력하여 기후변화 체험전을 진행하고, 여수 엑스포 유엔관도 운영해 사람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해 알려 주기도 했다.

“7년 전부터는 사선을 우리나라가 아닌 아시아 지역으로 돌렸습니다. 우리보다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돌아보자는 취지에서요.”

그렇게 아시아 지역 현장조사를 시작해 현재 1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물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우물 파기를 진행해 250개의 우물을 만들어 주었고, 태양광 전기구로 전구가 없는 1만 가구에 전기를 달아 주었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방글라데시 벵골만 지역에 에코 빌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구 달기, 우물 수질 개선, 생태교육, 에코 투어 및 일자리 지원까지 함께 하는 복합적인 사업이에요. 시범 기구가 성공적이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 가장 큰 빛은 친구로부터 진 빛도, 은행 빛도 아닌 자연에게 얻은 빛이라는 최열 대표. 인간이 자연을 버리면 자연도 인간을 버리지만, 인간이 자연을 살리면, 자연도 인간을 살린다는 최열 대표의 말처럼, 모두가 지구촌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때 더욱 깨끗하고 밝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닐까.







땀과 흥분, 열정의 도가니 속으로

축구부 VS 야구부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권장하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 그 곳에는 구기종목계의 영원한 라이벌, 축구부와 야구부가 있다. 열정 넘치는 왕성한 활동으로 건강한 열정을 보여 주는 축구부와 야구부의 동호회 현장을 따라가 보았다.

축구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

다양한 동호회가 있는 공단에서도 3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축구부는 2010년 공단이 통합되면서 출범했다. 공단 축구부는 안 다치면서 즐기는 축구를 목표로 끈끈한 친목을 보여 준다. 이들은 축구의 장점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꼽을 만큼 승부보다는 즐거움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70여 명이 넘는 많은 회원들이 있는 조직이다 보니 노련한 선배와 투지 넘치는 후배의 친구 조화를 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런

축구부의 조화로운 통합 이후 환경부장관기 우승 3회, 준우승 1회에 빛나는 화려한 경력을 갖게 했다.

전적을 보면 축구를 잘 아는 사람들만 가입해야 할 것 같지만, 가입 조건은 단 하나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뿐이다. 축구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답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친선경기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타 팀과의 경기도 진행한다. 마땅한 상대팀이 없으면 축구부원들끼리 OB vs YB의 경기도 벌여준다.



잘생김팀과 못생김팀, 서로의 실력 겨루기

3월 중순의 어느 날. 하늘은 쾌청하고 바람은 쌀쌀해서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날씨 속에 축구부원 20명이 수도권매립지 내 주민체육공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의 주인공, 축구부원들이다.

다소 추운 날씨에도 얼굴 한 가득 웃음꽃을 피우며 삼삼오오 들어서는 모습들이 행복해 보인다. 도착하자마자 다들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금세 축구부원들이 모여 들고 회장의 주도 하에 팀이 나뉘었다. 팀명은 따로 붙이지 않았지만 잘생김팀과 못생김팀으로 부르는 모습들이 재미있다. 젊은 잘생김팀과 다소 나이가 있는 못생김팀의 대결. 무한한 체력의 잘생김팀과 연륜과 경험이 넘치는 못생김팀의 박빙의 경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다. 심판도, 인원도 부족하지만 패스를 주고 받으며 골문을 흔들어 놓는 모습들은 프로 못지않다.

아마추어 경기라 25분 진행하고 10분 쉬고 다시 25분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어나가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도 실새 없이 이야기를 하며 몸을 푸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인데도 재미있따며 웃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다.

축구부의 올해 목표는 작년과 같은 환경부장관기 우승! 올해는 공단의 축구부가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고, 땀 흘리는 이 순간을 행복해하는 사람들, 바로 축구부가 아닐까.

축구부 미니 인터뷰



신누리 · 점심시간에 하는 축구의 즐거움

축구부에 가입한지 3년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운동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무작정 가입했는데, 팀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진짜 재밌어요. 기왕이면 올해 역시 환경부장관기에서 우승을 해서 3연패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호 · 축구를 사랑하는 골수 축구마니아

같은 부서원의 소개로 축구부에 가입했어요. 2004년부터 매일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부에 가입하고 보니 생각보다 더 재미있는 경기가 많아서 좋아요. 올해 목표는 환경부장관기 우승입니다!

은형찬 · 열정으로 뭉친 새내기 사원

입사한지 1년 3개월, 축구부에 가입한지 1년이니 제가 공단에 있던 시간의 대부분을 같이 했네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회사 생활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던 점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축구부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청희 · 축구부에 꼭 필요한 회장님

우리 축구부요? 일단 젊습니다. 패기가 넘쳐요. 참여율도 좋습니다. 타 팀과 경기를 하면 다른 곳은 13~14명이 나오는데 우리 공단 축구부는 30명이 나와요. 이런 팀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 역시 제 힘이 닿는 한 축구부 활동을 계속할 것 같아요.

강석재 · 야구부와 축구부, 함께 하는 행복

야구부와 축구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가능해요. 어느 한쪽이 더 좋은 게 아니라 둘 다 장점이 많은 동이리죠.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는 동호회처럼, 실력은 프로팀처럼

환경부장관기 야구대회 우승 1회, 환경리그 준우승 2회 등 굵직한 경기 실적과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실력파 야구팀이 있으니 공단 본사 야구부, 푸루(PURU)팀이다. 푸루팀은 2009년에 발족하여 현재 약 57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팀명을 '그린삭스'에서 공단의 마스코트인 '푸루'로 바꾸고 공단 가족 누구나 친숙하게 즐기는 야구 문화를 만들고자 애쓰는 중이다. 이 때문에 야구부 가입조건은 까다롭지 않다. 야구사랑의 마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기간도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푸루팀은 연구단지 입주기관과 약 연 5회의 친선경기를 가지며 일년에 12경기의 정기전을 진행하는 환경리그에도 참여하고 있다. 팀 순위를 가리는 리그에 참여하다 보니 성적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일. 팀 전력 보강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한다. 점심시간에는 짬을 내어 캐치볼과 간단한 수비훈련을 하고, 실내연습장이나 야구경기장을 대관하여 주기적으로 팀플레이 연습도 한다. 연 2회 프로야구 경기 관람을 통한 작전연구도 빼놓지 않는다. 또한, 야구하기 좋은 체격을 갖춘 동료가 있다면 입단원서를 들고가 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푸루팀을 자칭·타칭 '몸매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한다고.

환경리그 개막, 모두의 승리를 향하여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올해도 어김 없이 환경리그가 시작됐다. 푸루팀은

환경리그에서 '준우승 2회'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승에 대한 갈망이 큰 대회이다. 올해는 공단 본사가 있는 인천지역 연고팀과 유관기관팀 등 12개 팀이 참여하여 경합을 벌인다.

4월의 첫 토요일 인천 서구의 드림파크 제1구장에서 펼쳐진 개막전, 놀러 가기 딱 좋은 봄 날씨였지만 구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각 팀의 열띤 응원의 함성 속에 개막전 경기가 진행되었다. 푸루팀의 개막전 상대는 인천본부세관의 바이퍼시스템으로 지난 시즌 4강에 든 막강한 실력의 팀이다. 경기는 2시간으로 제한하여 치러졌다. 푸루팀의 공격으로 시작된 경기는 어느덧 마지막 이닝인 5회 말, 푸루팀의 수비 상황으로 양팀 스코어 모두 14점, 상대는 투아웃을 기록하며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감독 이하 모든 선수들은 상대 타자가 친 공을 잡아내는 수비수들에게 '나이스 캐치'를 외치며 힘차게 격려했다. 경기장 뒤쪽 안전펜스 너머에는 아빠를 따라 나온 김영기



대리(유해물질분석팀)의 가족도 응원에 열기를 더했다.

이날 푸루팀은 아쉽게도 바이퍼스팀에게 승리를 내 주게 되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 환경리그에서 국립생물자원관팀, 국립환경과학원팀과 경기 시 전통적으로 승률이 높지만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팀에게는 상대 전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팀을 잡는 것이 작은 목표. 이를 위해 다시 심기일전할 계획이다.

푸루팀은 실력 여하에 관계 없이 참여 회원이 경기에서 최소 1~2타석 이상 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공 한 번 던져 본 적 없고 배트 한 번 휘둘러 본 적 없어도 벤치만 지키지 않는다. 승리보다 더욱 값진 것이 '함께 하는 즐거움'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동료애가 더 소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숨은 저력이라리.



야구부 미니 인터뷰

김용길 · 푸루팀의 아신 감독

우리 야구부는 운동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합에 나오면 잠깐이라도 경기장에서 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경만 한다면 운동이 되지 않잖아요. 특별한 에이스는 없지만 모두가 에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기 · 야구로 얻는 나와 가족의 행복

야구부 총무를 맡고 있다 보니 거의 빠지지 않고 야구시합에 나오고 있어요. 야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야구를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배려해 주니 저도 가족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 응원해 주니 더욱 힘이 나네요.

범득수 · 야구로 맺은 폭넓은 인맥

2011년에 가입했는데 환경부장관배에서 우승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 날 빨리 갈 줄 알고 음료수도 3개만 사다 놔었는데 계속 이겨서 결국 우승까지 했거든요. 하하! 야구부가 아니었다면 서로 몰랐을 직원들을 알게 된 점이 참 좋습니다. 덕분에 업무 협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진규 · 환경리그 개막전의 막강 선발투수

투수로서 제 특기는 제구력과 완급조절이라고 할까요? 다른 부원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야구를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이다 보니 기쁨 부상도 있지만 부원들의 연령대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편이라 야구를 매개로 즐겁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가슴 떨리는

사내 연애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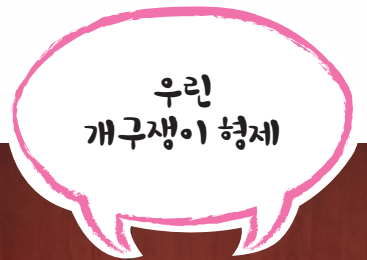
다양한 전공과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 근무하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곳에 청춘 남녀들끼리 눈이 맞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요즘 세태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숨기는 일이 많은 사내 연애를 당당히 밝히고 결실을 맺은 사람들이 있다.

사내 커플 만 9년차의 알콩달콩 첫 만남 이야기

2007년 1월, 이강희 대리과 엄성식 대리가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눈이 맞았다.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경상도 사나이가 보여 주는 친절함에 반한 이강희 대리와 활발하게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는 모습에 반한 엄성식 대리는 곧바로 알콩달콩한 연애를 시작한다. 연애를 시작한 뒤 주변 사람들 몇에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금세 사내 연애 사실이 퍼졌다.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둘의 모습에 선배들이 더욱 걱정을 했다고. 그렇게 공개 연애를 시작하니 회사 내에서 도는 소문 때문에 남의 이목도 더욱 신경이 쓰였다. 누가 누구를 사귀는지 다들 잘 알아서 소개팅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서로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한 상태여서 연애를 결심하고 1년 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된다.

행복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구속

만난지 9년차, 결혼한지는 8년째. 일곱 살 큰 아들과 여섯 살 작은 아들을 두고 있는 부부는 현재도 시골벽적,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중이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지만, 같은 업무를 하기에 누구보다도 든든한 의논 상대가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아이들이 회사 내 어린이집을 다니기에 출장이나 야근이 있을 때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좋다. 부부싸움을 해도 사내 메신저로 사과를 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풀기도 한다.

이강희 대리와 엄성식 대리 이후 사내 커플이 공단 내에 많아졌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먼저 공개를 한 연애를 해 본 입장에서 충고를 한다면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공개를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 회사는 소문도 빠르고 헤어지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맞거나 결혼 날짜를 잡으면 그 때 공개를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좋을 거라고.

공단의 사내 커플 특징을 물어보자 서로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는 이강희 대리와 엄성식 대리. 서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행동을 조심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 공과 사를 구분 짓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사내 연애뿐만 아니라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외면의 아름다움 보다는 성실하고 잘 이해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해 주는 부부. 주변의 평을 들어보고 좀 지켜 보다가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선배로서 조언해 준다. 그리고 모든 사내 커플이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사랑해요
우리가족



썸 타던 그들의 본격적 연애스토리

올 가을 결혼을 앞둔 사내 커플이 있다. 수도권서부지역본부 김시습 사원과 본사 문가람 사원이 그 주인공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커플의 연애의 시작은 공단이 아니다. 김시습 사원이 대학 재학시절 친한 친구로부터 문가람 사원을 소개받았는데 그녀는 친구의 사촌동생이었다. 서로에게 호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만남 이후 김시습 사원이 유학을 가고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은 뜸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가람 사원은 통합4기로 공단에 입사하게 되었고 여름 휴가를 맞아 고향인 광주에 내려왔다가 그 때 마침 광주에 와 있던 김시습 사원과 다시 만나면서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공단에 먼저 입사한 문가람 사원은 공단의 채용공고를 보고 당시 취업 전이던 김시습 사원에게 이를 알렸다. 사내 연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남자친구와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다. 김시습 사원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준비 과정에서도 문가람 사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문가람 사원은 공단에 먼저 입사한 선배로서 인터뷰 예상 질문도 뽑아 주고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주는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공단 입사 준비는 이들에게 사랑의 기폭제가 되어 주었다.

김시습 사원은 당당히 통합5기로 합격하였고 그렇게 자발적 사내 커플이 되었다. 너무 조심스러워 가능한 피하고 싶은 것이 사내 연애이지만 오히려 사내 커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던 두 사람, 이들에게 '사내 커플'은 커다란 사랑의 힘으로 만들어 낸 결실이었다.





함께여서 더욱 특별한 추억

출장 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의 합격 사실을 알게 된 문가람 사원은 그의 합격 소식을 전화로 알려주며 감격스러웠던 그 상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남자친구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주변에도 이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남들의 시선과 서로에게 들려 올 상대에 대한 이야기, 불필요한 오해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당당해질 수 있었다. 사내 커플이 된 두 사람이 꼽는 특별한 기억은 지난해 진한 동료애까지 경험했던 대구세계물포럼 행사. 당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뛰어 다니면서 일했는데, 구두를 신었던 발이 다 까질 정도로 고생했지만 서로 조언을 주고 받으며 일했던 이 날의 경험은 두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사내 연애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가람 사원이 꼽는 사내 연애의 치명적 단점 중 하나는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김시습 사원의 변을 듣자 하니 이렇다. 같은 직장 내에 있다 보니 여자친구 몰래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일이 끝나는 시간이나 스케줄을 서로 대충 알고 있다 보니 여자친구 모르게 뭔가를 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는 따로 준비하지 못하고 지난 크리스마스에 프로포즈를 적당히 대신했다고 한다. 여자로서 아쉬우면서도 남자친구의 상황을 잘 알기에 이해할 수 밖에 없는 문가람 사원. 이 또한 사내 커플의 장점이 아닐까?

올 9월 결혼을 앞두고 준비할 것도 많고 서로 맞춰야 할 것도 많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그리고 자발적 사내 커플답게 서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나가리라 기대된다.

♥
행복해요
너와 나,
우리





2015년 1학기.

대학교의 마지막 학기였던 그 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IEETP)에 지원하게 되었다. 몇 번의 시험과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환경을 알아가던 나는 IEETP를 끝내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의 인턴이 되었다.



국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환경

철새의 여정, 나의 여정

중간 기착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이름만 무려 17글자이다. 처음 EAAFP인턴모집 글을 봤을 때는 '아, 역시 국제기구느 참 많고도 다양하구나!'하며 여기는 대체 뭘 하는 국제기구인가 싶었다. 호기심에 관련 정보를 찾아 보았고, 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흥미가 생겨 지원하게 되었다. 우선 업무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커뮤니케이션 쪽이었으며, 인접한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흥미가 생겼다.



EAAFP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이동성 물새들(migratory waterbirds)과 그들의 서식지를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발적이고 비형식적인 국제기구이다. 정부,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 NGO와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2006년부터 함께 한 파트너이다. EAAFP는 여러 방향으로 보전을 위해 힘쓰는데, 그중에는 철새이동경로상에서 공통으로 출현하는 이동성 물새의 종, 개체군과 서식지들의 상호연결성, 즉 철새이동경로 사이트 네트워크(Flyway Site Network)를 구축하는 일도 포함된다. 현재 17개 국가의 123개 서식지가 EAAFP 사이트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한국은 철원평야[EAAF027]와 순천만[EAAF079] 등 11개의 사이트가 등록되어 있다.¹⁾

EAAFP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자리하고 있다. 10명 정도 적은 인원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주 인턴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함께하는 직원회의를 통해 활발한 의견 교류 및 소통이 이뤄진다. 처음 한 달 동안 사무국에서 내가 맡은 주된 업무는 홈페이지와 SNS의 유지관리였다. EAAFP의 가입국과 관련 국제 중 전문가들로부터 받아 취합된 자료와, 관련 뉴스 등을 검색하고 이를 편집, 요약 혹은 번역하여 여러 채널을 통해 공유하는 일이었는데, 이 업무를 통해 컴퓨터 활용능력을 기른 것은 물론이고 EAAFP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는 점차 업무의 범위가 늘어났다. 지역 행사 보조, 중문 소개 책자 제작, 과학 논문 검색, 회의록 작성과 보고서 편집 등 다양한 일을 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주말에는 사무국 사람들과 탐조를 나가기도 했는데, '탐조(深鳥 자연 상태에 있는 새들의 모습이나 울음소리를 그들을 손상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라는 취미 활동이 있다는 것도 이때 알았다.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와 홍콩의 일부 도시에서는 탐조관광이 주요 관광상품일 만큼 보편적이라고 한다. 저 멀리 점으로만 보이던 새를 망원경을 통해 관찰하고 싶노라면 신기하기도 하고 잘 지켜 줘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했다. 철새는 여러 나라를 이동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만 열심히 보호하려고 노력해 봤자 이동경로의 다른 나라가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실제로 호주에서 건강하게 떠난간 도요새들이 돌아오지 않아 호주의 애조인(愛鳥人)들이 슬퍼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더더욱 EAAFP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계속되는 여정

인턴 기간 6개월 중 이제 남은 기간은 불과 1개월이다. 남은 1개월은 세계철새의 날(5월 10일) 준비로 숨 가쁘게 지나갈 예정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느끼고 떠나게 되어 감사하다. 가족처럼 지난 5개월 동안 챙겨 주고 가르쳐 준 EAAFP 사무국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인턴십을 가능케 해 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도 감사하다. 이 이후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순환하는 철새의 여정과는 다르게 나의 여정은(갈자자로 나아갈지연정) 앞으로 나아갈 것이기에, IEETP와 EAAFP를 통해 얻은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나의 길을 기대해 본다.

1) EAAFP 소개 책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 인턴 유은진(왼쪽에서 4번째)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당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1

승진 때문에 육지로 떠난 선관위 사무관 마늘님, 그녀 대신 세탁기 돌리고 고3 아들 새벽 밥 해 먹고 학교에 비래다 주고 오늘도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하는 당신, 온갖 초목의 이름을 식물학자처럼 줄줄이 읊고 오름이며 계곡이며 올레길 구석구석까지 꿰뚫는 만물박사, 18년 전 제주로 장가 와서 제주 토박이보다도 더 제주 구석구석을 잘 알고 사랑하며 물에서 온 손님들의 눈과 귀에 즐거움을 주는 당신, 제주에서 최초로 시작된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온 당신, 구들장을 지피는 어머니처럼 모든 이들과 잔잔한 미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조직의 하모니와 소통을 이끌어 내는 당신, 직계상 팀장 없는 부서에서 묵묵히 뚝나 지사장을 보필하며 팀장 이상의 역할을 해 주는 당신, 한라산이 제주를 밝혀 주듯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안 차장, 당신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안 팀장 그 이상입니다.

보내는 사람 | 호남지역본부 제주지사 지사장 임종욱
받는 사람 | 호남지역본부 제주지사 차장 안경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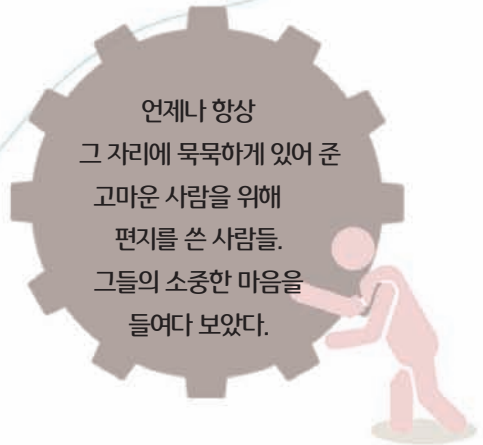
2



지난 2013년부터 행자부 U-서비스 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주에서 맨 처음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범사업 초기 공단에서 뭘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고양이에게 방울을 다는 격인 차량 GPS며 블랙박스를 왜 설치해야 되냐며 장비를 우리는 설치할 수 없다고 쇠스랑을 들고 협박하던 일과 맨땅에 헤딩하는 업무라 시행착오도 많았고, 현장에서 수많은 요구사항과 불평 불만을 싫은 기색 없이 웃으면서 받아 준 김과장! 정말 고맙고 그때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이네~ 물론 개발팀 모두 고생을 하였지만 밤을 새워 가면서 현장 민원을 해결해 주었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폐수처리차량관리 등 다른 사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고마움을 전하네~

보내는 사람 | 호남권지역본부 제주지사 차장 안경만
받는 사람 | 본사 폐기물관리처 올바른개발팀 과장 김한성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묵묵하게 있어 준
고마운 사람을 위해
편지를 쓴 사람들.
그들의 소중한 마음을
들여다 보았다.



3

꼼꼼한 진 대리님, 언제나 팀에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팀장님부터 팀 전원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주고 챙겨 주던 모습이 요즘에 와서는 무척이나 그림습니다. 덩벙덩벙대는 선배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도 귀찮은 내색 한 번 안 보이고 항상 웃는 얼굴로 즐겁게 일하는 모습에 저도 많이 배웠고 고마웠습니다.

덤으로 얻은 업무를 하면서 조금 힘들었지만 다시 한 번 마음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 보자고 으쌰으쌰 했는데 발령이 나버려서 허탈하면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그곳에서도 인정받고 즐겁게 일하는 모습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답니다. 또 파이팅하면서 함께 일할 날이 기다려지네요~

보내는 사람 | 폐기물관리처 울바로개발팀 과장 김한성

받는 사람 | 폐자원에너지센터 폐자원시설검사업 대리 진윤희



보내는 사람 | 폐자원에너지센터 폐자원시설검사업 대리 진윤희
받는 사람 | 인재경영처 정보보안관리T/F팀 과장 임행진

4

정보보안관리T/F팀 임행진 과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사이버보안이며 정보보안 업무로 수많은 문의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밝은 목소리로 답변해 주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한 개 팀의 보안업무도 참 손이 많이 가는데 공단 전체의 보안 업무가 얼마나 힘 들고 중요한 지 알기에 더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과장님을 지켜 보면서 느낀 점은 늘 웃는 모습으로 상대방의 마음도 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랄까요?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참 많이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5

정보팀 업무 특성상 전 부서에서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이경애 사원 목소리는 항상 맑음 입니다.

이경애 사원은 수 년 동안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정보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일 자체도 많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업무입니다. 최근에는 국정원 평가 등 보안 이슈가 많지만,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본부 현황 및 홈페이지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먼저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모든 일에 열정 적이며,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 주는 이경애 사원을 칭찬합니다. ^^

보내는 사람 | 인재경영처 정보보안관리T/F팀 과장 임행진
받는 사람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사원 이경애



6

☆후배를 잘 챙겨 주셨던 정희철 대리님을 칭찬합니다~*^^* ☆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회사생활에 관련된 조언을 장문의 메일로 알려 주시고, 대기근무 기간이 길어져서 오랜기간 내규집만 보고 있던 저에게, 본인도 바쁘신데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MIS 사용법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 등등하나씩 상세히 알려 주셨던 대리님께 너무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알려 주셨던 내용들은 그 당시엔 잘 알아듣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렸지만... ㅜㅜ 그래도 세심하게 후배를 챙겨 주시던 대리님의 마음은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리님과 같은 선배가 되려구요~ ㅎㅎ 감사합니다~*^^*

보내는 사람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사원 이경애

받는 사람 |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대리 정희철



7

2013년도에 영남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처음 인사드렸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우리 공단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위직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상위직 직원들보다 하위직 직원들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신 본부장님 덕분에 저희 직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산 방방곡곡에서의 본부장님과 직원들의 추억이 제 가슴 한 켠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록 자주 뵈지 못하고 연락도 못 드리지만 본부장님 존경하는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제 위치에서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공단을 위해서 힘 써 주세요. 제가 원래 고백은 잘 안 하는데, 이번 기회에 용기 내어 고백합니다. ㅋㅋㅋ 사랑합니다. 권영석 본부장님!

보내는 사람 |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대리 정희철
받는 사람 | 본사 환경시설지원본부 본부장 권영석



고민 많은 직장인들

살아있는 질문

답변자 이순모

(주)케이베리 CEO

(전)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전)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질문자
메가톤급 소심쟁이

저는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고민이에요.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봐, 나에 대해 안 좋게 평가할까 봐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에게 누구도 강요한 적은 없어요. 제 성격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참 힘든 문제입니다.

남을 도와주면서 즐겁지도 않고, 이렇게 도와주는 자신이 일명 '호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괴롭기까지 하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만만해서 저러는 건가.' 왜곡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불만스러워 점점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면 나를 더 좋아해 주겠지.' '싫어하는 건 싫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관계가 과연 거기까지 뿐인 걸까요?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언제든지 'Yes'라는 대답을 해 주는 관계를 원하고 있나요? 그런 관계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 가지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이란, 당신의 거절을 거절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당신은 그렇지 않은 관계와 사람들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쓰며 건강을 버리고 있는 셈이 되는 거지요.

먼저, '거절의 날'을 하루만 정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데 미안해요.'

'같이 가고 싶지만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요. 저 없다가 너무 재미있으시면 안 되요.'라는 식으로 거절해 보세요.

그 부탁이 싫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오늘은 정말 사정이 어려워 거절하는 거라는 어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점점 상대방이 당신의 거절로 당신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음부터 거절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괴로운 Yes보다 훌륭한 No를 던지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자
꿈 많은 나란 남자

고졸 취업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입사했습니다. 현 업무를 좋아하고 재미있게 하고 있지만 젊기에 또 다른 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더 공부해야 할지 좋아하고 원하는 꿈을 향해 도전하고 공부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먼저 판지 하나만 걸겠습니다.

꿈이란 젊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의 종류는 하나보다 많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젊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은 것이 아닐까요?

젊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일에 대한 호기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하는 일보다 다른 일이 더 좋아 보이거나 해보고 싶은 일로 비추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은 그것이 크건 작건 다른 누구도 아닌 미래의 당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당신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말하는 꿈이 그저 하고 싶은 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질문을 보면 당신 자신도 아직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현재 당신의 회사와 업무를 어느 정도나 좋아하고 있습니까?

평생 가져야 할 일로 당신에게 성취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인가요?

‘더 공부해야 할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이란 회사에의 필요인가요, 당신 자신의 필요와 욕심에 의한 것인가요?

다른 무엇보다 당신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일이야말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당신을, 당신 자신이 원해서 진심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일인가요,

‘좋아하고 원하는 꿈을 향한 도전과 공부’인가요?

아마 당신은 지금쯤 답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면, 다른 일이면 결국 당신이 원하는 일이었으며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되돌려 주는 하천정화

수도권서부지역본부 1사1하천 운동

지난 3월 25일, 쌀쌀한 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추운 날씨에 파주 헤이리천에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사람들이 떴다. 바로 겨우내 헤이리천에 쌓인 묵은 쓰레기와 지저분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것. 우리 하천의 환경을 살려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단의 사회공헌활동 현장을 따라가 보았다.





상생하는 공공기관, 수도권서부지역본부

2013년 9월 11일, 지방조직의 활성화 기반 마련의 현장 밀착 경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공단의 서울 지사를 확대 개편할 목적으로 수도권서부지역본부가 출범하였다. 그 이후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부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 2015년 7월, 민관 합동으로 파주시와 1사 1하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파주시 헤이리천 정화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본래 파주 헤이리천은 파주시가 통일 동산 내 헤이리 마을을 조성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헤이리천은 오염원에 방치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2011년 8월과 10월, 전문가의 조사 결과 수질 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공단이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파주 헤이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해당 하천의 사후 관리 및 수생태계 보존을 위해 하천 주변 정화활동 및 생태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수도권서부지역본부에서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는 파주 헤이리천 정화활동은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 줌과 동시에 환경 보전과 생태 하천 보전에 앞장서는 공단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쌀쌀한 날씨에도 계속되는 환경 정화

찬 바람이 가시지 않은 3월 25일 오후 1시 50분. 파주시 헤이리천 옆의 화이트블록 옆 공터에서 공사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들었다. 봉사활동 시작 시간인 2시 전에 준비를 끝내기 위해 파란 조끼를 입고, 청소 도구를 챙기는 손길이 분주하다. 체력을 써야 하는 활동이기에 단체 사진을 먼저 찍기로 결정했는데, 어디선가 준비해 왔으며 '새봄맞이 1사 1하천' 글씨를 꺼내 든다. 일찍 온 사람들도, 길을 잘 못 찾아 2시 경각에 도착한 사람들도 모두 결의에 찬 화이팅을 외치며 헤이리천 정화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햇빛이 따갑고 바람은 차갑지만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사람들은 각자 조끼와 청소도구,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순식간에 나눠 들고 삼삼오오 흩어졌다. 지나가면서 결눈질로만 봐도 눈에 띄는 큰 쓰레기들이 많았던 탓이다. 그 날 모인 총 32명의 사람들이 1.2km에 걸쳐 형성된 기다란 헤이리천의 위에서 아래까지 자리를 잡고 흠뻑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모임장소 바로 옆의 갈대 습지는 쇠시랑을 넣고 한번 굵어 올리자 쓰레기가 우수수 떨어 나온다. 썩어가는 잡초는 덩이다. 반듯하게 포장된 길의 양 옆에는 낙엽이 반, 담배꽂이가 반이다. 담배케이스와 아이스크림 포장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비닐, 깨진 유리, 플라스틱 병, 각종 캔 등도 한 가득 나온다. 보이는 곳에 워낙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 적당히 줍고 돌아설 만도 한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철책 너머까지 내려가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쓰레기까지 모두 주워 담았다.



웃고 이야기하며 꼼꼼하게 쓰레기 줍기

“쓰레기가 많은 게 아니고 우리 눈이 좋은 거예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수수 쏟아지는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는 순식간에 쓰레기들이 가득 찼다. 걸을 때마다 무겁고, 손은 시리고,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는 무릎과 허리가 아플 만도 한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밝다. 남자들은 서로의 체력과 근력을 자랑하며 펜스를 확실히 넘어 다니고, 여자들은 원래 여자가 꼼꼼해서 이런 정화 작업을 더 잘하는 법이라며 웃으면서 자랑한다.

다른 구역으로 이동해 보니, 그곳에는 하천으로 내려가 정화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보였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물이 적은 탓에 잡초가 저저분하게 자라난 하천에는 각종 쓰레기와 썩어가는 풀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하천을 따라 길을 걸으며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것은 물론, 하천 중앙에 난 징검다리에서 올라가 호미와 집게를 가지고 잡초를 제거하는 모습도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를 줍다가 계단 옆 언덕을 타고 올라오기도 했다.

의욕적으로 하천 정화활동을 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 가는지도 몰랐다. 해가 누워누워 기운이 시작하자 가득 찬 쓰레기 봉투를 들고 모임 장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모임 장소로 돌아오는 도중에도 길가에 가득한 쓰레기들이 보이자, 걸음을 멈추고 일렬로 늘어서 쓰레기를 줍는다. 담배꽂이에서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까지 하나하나 주워 담는 모습들이 인상적이다. “바람 정말 센데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기분은 좋다.”

손이 시럽다고, 쓰레기가 너무 무겁다고 손을 호호 불면서 쓰레기 봉투를 다시 쥐다가도 옆 사람과 마주치면 눈을 크게 휘며 웃어 준다. 모임 장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시작 인원의 반도 안 됐는데, 쓰레기 봉투를 모아 놓으니 한 가득이다. 어떻게 버려지게 됐는지 짐작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 가득 모였다.

더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3월 22일은 UN이 제정·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다. 2016년의 슬로건은 ‘Water and Jobs’로 물이 단순히 씻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자는 뜻에서 정해졌다. 이번 헤이리천 정화 운동 역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한 것이다.

자연과 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공단은 지자체와 함께 1사1하천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환경사랑홍보교육관 운동에 기반한 이동홍보관 운영, 영세사업장 도우미 자원,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1사전통시장, 1사1촌 등 다양한 상생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증장애인 시설 기부 등 자발적 나눔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수도권서부지역본부를 비롯한 공단 전체는 앞으로도 업무 특성을 살림과 동시에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헤이리천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생태하천 관리방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주변지역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알레르기 없는 봄

어려운 걸까?

알레르기 비염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봄은 아름답기보다 괴로운 계절이다. 번덕스러운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거나 황사와 꽃가루, 미세먼지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유발되거나 심해지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조금은 편안하고 아름다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 보자.

봄철 알레르기 대표 질환

코 점막이 꽃가루 등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현상으로, 원인 물질이 코 점막에 노출된 후 다양한 매개 물질에 의해 자극 부위에 염증을 일으킨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적 재채기, 맑은 콧물, 코 막힘이 주요 증상이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때 알레르기비염을 의심할 수 있다. 코 주위 가려움, 두통, 후각 감퇴가 나타나기도 한다.



유발 항원이 눈의 결막에 접촉하여 결막의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염증 질환인 알레르기 결막염은 눈이나 눈꺼풀의 가려움증, 결막의 충혈, 눈의 화끈거림을 동반한 전반적인 통증, 눈부심, 눈물 흘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알레르기 천식은 외부의 알레르겐을 흡입해 발생한 알레르기 염증과 기관지를 구성하는 기관지 평활 근육의 이상으로 기관지가 좁아지고 넓어지는 것이 반복되는 질환이다. 호흡곤란, 천명(쌉쌉거리는 숨소리), 기침이 주요 증상으로 악화 시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봄철에 가장 흔한 알레르기 피부염의 원인은 꽃가루다. 주요 증상은 가려움증, 별경게 부어오름, 보루지 등이며, 심하면 물집이 잡히거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4, 5월에 피부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알레르기 피부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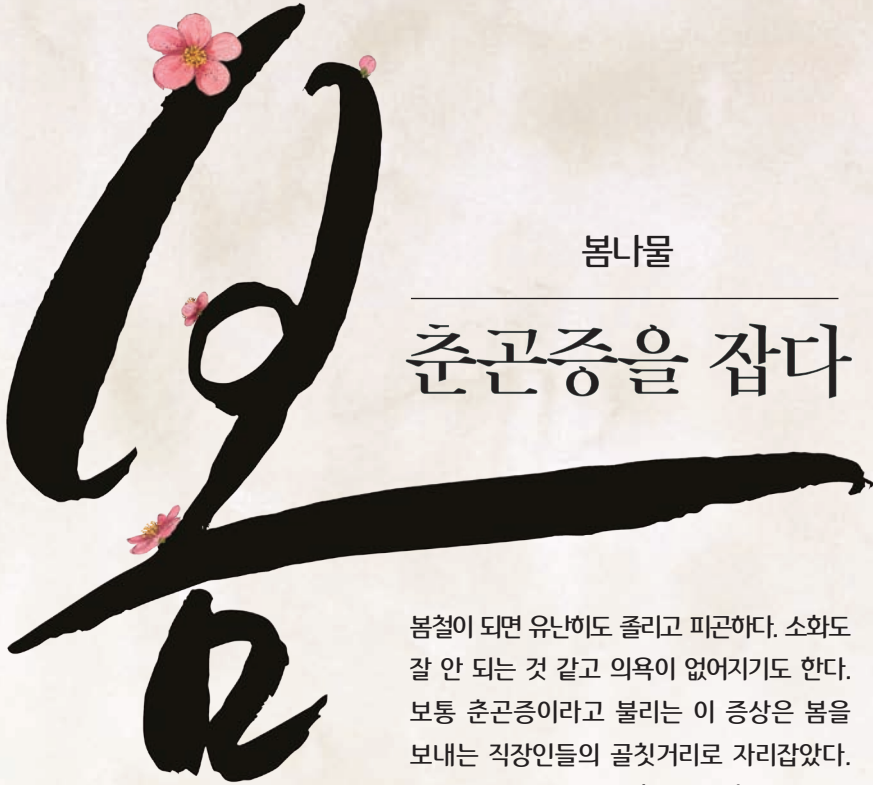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좋은 음식

- 기본적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물은 피부를 건강하게 하며 몸 속에 축적된 노폐물을 씻어 낸다. 매일 8~10잔 정도의 물을 마시도록 한다.
-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은 몸의 면역력을 높여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을 준다. 봄철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를 권한다.
- 감자와 양파를 재료로 무엇이든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 또는 감자와 양파를 약한 불에 삶은 뒤 그 물을 따뜻하게 하루 3, 4회 정도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 돼지고기에는 중금속 해독과 배출, 신경자극 조절 능력이 있는 비타민B₁₂가 풍부해 알레르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구이로 먹거나 자극적이지 않게 요리하여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좋다.
- 비타민D와 비타민B가 풍부한 콩과 두유에는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 콩은 신체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 김치 속 풍부한 비타민은 몸의 면역력을 높여 알레르기를 예방하는데 좋다.

간단한 생활수칙으로 예방하는 봄철 알레르기

황사가 심할 때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공기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바깥 공기가 좋아졌을 때 집안을 환기시키는 것이 좋다. 젖은 걸레를 사용해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고 습도는 40~50% 정도로 높게 유지한다. 외출을 해야 하는 날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손발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도록 한다. 황사에 섞여 날아오는 다량의 중금속과 미세먼지가 묻은 옷과 가방도 자주 세탁해 주는 것이 좋다. 가급적 렌즈보다 안경을 착용하도록 하며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도 최대한 가려야 한다. 알레르기 천식의 경우 침구 및 실내 주거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집안 청소와 적절한 환기가 필수다. 진공청소기를 이용할 때는 한번 흡입된 집먼지 진드기 등의 원인 물질이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특수 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진공청소기 사용 시 밖으로 날리는 먼지도 많으니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돌리지 않도록 하자. 베갯속은 합성수지나 특수 재질로 만든 것을 사용하며 베갯잇은 자주 세탁한다.

알레르기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코끝이 간지럽고, 재채기가 나면 생리식염수로 코를 소독하고 페퍼민트나 유칼립투스 등 아로마 오일 테라피로 증상을 완화시키도록 하자. 눈이 가려울 때에는 절대 비비지 않도록 하고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인공눈물을 사용해 이물질들을 빼 내는 것이 좋다. 간지러움이 극심할 때는 얼음으로 냉찜질을 하여 가려운 증상을 완화시키도록 한다. 만약 목이 답답하거나 간지럽다면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구거나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는 사탕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침을 멎게 할 수 있다. 언제나 미지근한 물로 건조한 물을 적셔 주는 방법도 좋다.



봄나물

춘곤증을 잡다

봄철이 되면 유난히도 졸리고 피곤하다.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의욕이 없어지기도 한다. 보통 춘곤증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봄을 보내는 직장인들의 골칫거리로 자리잡았다. 원인으로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생기는 영양불균형으로 꼽는 경우가 많으며 해결 방법으로는 잠깐 잠을 내어 쪽잠을 자거나 잠깐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한다.

봄, 봄, 봄, 봄나물

봄나물은 쓰고 짭쌀하고 독특한 향으로 입기 쉬운 봄철 입맛을 살려 주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무기질 등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봄철 피로감 및 춘곤증을 이기는데 도움을 준다. 한 끼 식사에 냉이 30g(7~20개), 참나물 40g(10~15개), 취나물 45g(20~30개)를 먹으면 일일 영양 대비 비타민A 101%, 비타민C 35%, 비타민B₂ 23%, 칼슘 20%를 섭취할 수 있다.

달래, 돌나물, 씬바귀, 참나물, 취나물, 더덕 등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두릅, 다래순, 원추리, 고사리 등은 식물 고유의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니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원추리는 성장할수록 콜히친이란 독성분이 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순만을 섭취하도록 하고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 차가운 물에 2시간 이상 담근 후 조리하도록 한다. 생으로 먹는 것들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3회 이상 깨끗하게 씻은 후 조리하면 잔류농약이나 식중독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봄나물을 조리할 때는 독특한 향과 맛을 살리기 위해 자극성이 강한 양념은 되도록 적게 사용하는 게 좋다. 생채로 이용할 때는 먹기 직전에 무치는 것이 좋고 숙채로 조리할 때는 나물이 특성을 잘 살리도록 삶는 방법을 배워 향기와 맛이 잘 살도록 조리하는 것이 좋다. 양념이 지나치면 나물 본래의 맛을 내기 어렵고 양념이 잘 배지 않으면 봄나물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냉이

냉이 다른 것들보다 비타민B,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에 좋고 특히 춘곤증에 효과적이다. 독특한 향과 맛이 있어 생으로 먹어도 되고, 소금을 넣은 물에 살짝 데쳐 먹어도 맛있다. 냉이에 함유된 무기질은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두릅

달래 작은 마늘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매콤한 맛이 나는 달래는 비타민A, B, C 등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칼슘과 칼륨도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의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짠 음식을 많이 먹을 때 함께 먹으면 효과적이다.

두릅 '봄 두릅은 금(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릅은 비타민A, C의 함량이 높으며 칼슘이나 섬유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좋는데, 약으로 쓸 때는 그늘에 말려 달여 마시면 된다.



숙

숙 비타민A가 풍부한 접시(약 80g)면 성인에게 필요한 비타민A 하루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 이밖에 비타민C, 칼륨, 철분, 인, 무기질 등도 풍부하다.

취나물 비타민A, 탄수화물, 아미노산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봄에 나오는 나물 중에 맛과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살짝 데쳐 쓴맛을 없앤 후 양념에 무치거나 볶아 먹는다. 두통, 감기, 진통에 효과가 있어 한약재로도 사용된다.



돌나물

참나물 비타민A의 전구체가 되는 베타카로틴이 높아 안구건조증 예방에 좋고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도 좋다. 김치를 담가 먹거나 연한 잎을 잎자루와 함께 생으로 쌈을 싸 먹거나 데쳐서 나물로 먹는다.

돌나물 달고 심심하며 서늘한 성질을 가져서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 주는 나물이다. 말린 것을 차처럼 끓여 마시면 해열과 해독 효과를 볼 수 있고 생즙을 마시면 간경변에 좋다.

머위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할 수 있으며 17가지나 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다.

TIP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생채)	냉이, 달래, 돌나물, 썬바귀, 참나물, 취나물, 더덕 등
데쳐서 먹어야 하는 것(숙채)	두릅, 고사리, 다래순, 원추리 등
데친 후 건조한 것(묵나물)	취나물, 참나물, 고사리, 두릅, 숙, 고비 등

조선시대 전통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영주 선비촌

에코뮤지엄(ecomuseum)이란 Ecology와 Museum의 합성어로서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면 전통적인 박물관의 기능에 자연생태와 자연환경의 보전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야외박물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진다. 우리나라에도 에코뮤지엄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같은 곳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 소개할 영주 선비촌 역시 에코 뮤지엄 형태로 운영되는 곳으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수신제가(修身齊家),
입신양명(立身揚名),
거무구안(居無求安),
우도불우빈(憂道不憂貧)
4가지 선비 정신에 맞는 테마로
꾸며진 고택들

영주시에 건설된 조선시대 테마파크

경상북도 영주 지방은 공자와 맹자의 근원이라는 '추로지향(鄒魯之鄉)'의 자부심이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주자성리학을 도입한 안향의 유적과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왕이 이름을 지어주고 노비, 서책, 토지 등과 함께 현판을 써 보낸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유교 교육기관이 타 지방보다 많이 밀집되어 있다. 영주시는 옛 선비 정신과 조상의 학문 탐구, 전통 생활 모습 재현을 통해 관광 자원을 발굴할 목적으로 선비촌을 계획했다. 사라져 가는 전통의 정신과 문화를 재조명하여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다.

1997년 착공된 후, 2004년 9월 22일 문을 연 영주 선비촌은 죽계천(竹溪川)에 접한 논을 흙과 돌로 메워 총 부지면적 57,717㎡(1만7,459평) 전시가옥 면적 2,651㎡(802평)에 달하는 규모로 만들어졌다. 주요 시설물로는 와가 7가구, 초가 5가구, 누각 1동, 정사 2동, 정려각 2동, 성황당 1동, 곳집 1동, 원두막 1동, 저잣거리 등이 있다.

충실하게 재현한 영주의 고택들

영주의 주요 고택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선비촌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물씬 풍기는 고택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토담, 기와집과 초가집 사이 사이 이야기가 흐를 것 같은 푸근한 정이 느껴지는 골목까지 자리하고 있다. 선비촌에 있는 12채의 고택은 영주 곳곳에 있는 전통 깊은 기와집과 초가집을 모델로 했다. 만죽재 고택, 해우당 고택, 김뢰진 가옥, 두암고택 등은 실존하는 집을 그대로 본 떠서 만든 것이다. 고택들을 만들어 놓은 생김새가 매우

고풍스럽고 아름다워서 철저한 계획 아래 만들어진 곳임을 모른다면 예전부터 영주시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옛 마을같은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선비촌은 테마별로 주제에 맞는 고택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수신제가(修身齊家), 입신양명(立身揚名), 거무구안(居無求安), 우도불우빈(憂道不憂貧) 등 4가지 선비 정신을 나타낸다. 수신제가는 집안을 올바르게 가꾼다는 뜻으로 김상진 가옥, 해우당 고택, 강학당 등이 속한다. 수신제가의 공간에서는 자기수양을 위해 노력했던 영주 선비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육방식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신양명은 사회에 진출하여 이름을 드높인다는 뜻으로 두암고택, 인동장씨 종택 등이 이 구역에 속해 있다. 입신양명 테마에는 중앙관직에 진출하여 다양한 활동을 했던 영주 선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거무구안은 사는데 있어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문기 가옥, 만죽재 등이 이 테마에 속한다. 거무구안의 공간에는 명상과 풍류를 즐기면서 자신의 안위보다 현실의 잘못을 비판한 굳은 기개를 가진 선비 정신을 볼 수 있다. 우도불우빈이란 가난한 삶 속에서도 바른 삶을 중히 여긴다는 뜻으로 청렴한 선비의 삶을 가리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김세기 가옥, 김뢰진 가옥, 장휘덕 가옥, 이후남 가옥, 김규진 가옥, 두암고택가람집이 이 테마에 속한다. 우도불우빈 테마에서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선비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이 밖에도 정자, 물레방아, 강학당, 원두막, 대장간 등의 전통 민속 시설을 갖추어 옛 문화의 한복판에 와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또한 음식점, 주차장 등도 마련해 놓아 관람객들의 편리함까지 고려했다.



수준 높은 우리네 전통문화 체험

선비촌은 소수서원과 연계되는 영주의 선비정신과 이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역사관을 확립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비들의 생활을 그대로 느껴 볼 수 있도록 직접 체험이 가능한 참여형 이벤트와 각종 체험형 전시, 전통문화체험을 진행한다.

시기에 따라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 붓글씨 쓰기, 탁본 체험, 다례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투호, 제기차기, 널뛰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같은 민속놀이는 연중 체험이 가능하다. 관람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농악, 다도시연, 강연, 전통 혼례 같은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제공한다.

현재 선비촌의 만죽재 고택, 해우당 고택, 김문기 가옥, 인동장씨 종택, 김세기 가옥, 두암고택, 김상진 가옥 등 기와집 7채와 장휘덕 가옥, 김뢰진 가옥, 김규진 가옥, 두암고택가람집, 이후남 가옥 등 초가집 5채는 숙박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다. 전통가옥에서 옛 방식 그대로 하룻밤을 즐기는 숙박 체험이다. 오래된 가옥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전통방식이라고 해도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제공되는 방이 따뜻하고 환경이 쾌적해 대년 사람들의 평판이 좋다. 숙박 공간에 따라 율놀이, 장작때기, 지게지기, 새끼꼬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마을의 하루

선비촌은 처음부터 테마파크를 컨셉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다는 느낌은 좀 덜하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옛 생활 방식을 느끼면서 향수를 떠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마을 안 곳곳은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다니기가 편한 길로 구성되어 있다. 품위 있는 모습의 전통 기와집과 탈탈한 모습의 초가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도 특이하다.

마을 중심에 있는 저갓거리 떡집에서는 금방 만들어 낸 쫄깃한 떡을 팔고 있고, 짬뽕에 체험장에는 짬으로 만든 짬신, 삼태기, 주루막, 닭동우리 등이 전시되어 서로의 모습을 뽐낸다. 기념품 전시장과 음식점, 주막, 찻집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구경과 요기를 하기에 좋다.

숙박 시설에 들어서면 한지 창을 통과하여 방안으로 비쳐 드는 햇살은 투명한 유리창으로 비치는 햇살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밤이 되면 달빛과 별빛이 스며 들어 한층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도심의 가로등 불빛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한다. 한옥의 대청마루에 누워서 보는 푸른 하늘은 오염된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절경이다. 밤이 되면 눈 앞에는 쏟아질 것처럼 아름다운 별들의 바다가 눈에 들어온다. 날이 좋으면 은하수도 볼 수 있다.

입소문을 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영주 선비촌.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전통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이 곳은, 살아있는 박물관의 역할을 현재도 충실히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환경공단,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최우수 기관) 달성!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최우수 기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란 자율적인 청렴시책 추진을 유도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진단·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각 기관들이 추진한 청렴사업들을 평가한 것이다. 공단은 △ 이사장, 상임감사 등 경영진의 청렴 소통 △ 부패유발 요인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 △ 청렴 실천 리더 선정과 부서별 반부패 자율개선과제 발굴·실행 △ 일상·특정 감사로 예산낭비 예방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렴 문화의 내부 정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펼쳐 온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1등급(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공단은 2013~20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공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선도해 왔다. 공단 강형신 감사는 "이번 성과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조직 내 문화로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바로바로 확인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2월 29일부터 지하역사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44곳의 실내공기질 정보를 '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info.inair.or.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는 서울, 인천 등 전국 6개 도시 37곳의 지하역사와 함께 서울 소공동 지하상가, 김포공항 대합실 등 총 44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₂)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 정보를 제공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 정보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각각 9곳과 35곳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 자동측정망의 실시간 공기질 측정자료를 취합한 것이며, 오염물질 농도 정보를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설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오염물질 농도와 함께 좋음, 보통, 관리필요 등 3단계의 아이콘 형태로 표시되어 실내공기질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실내공기질의 정보를 바로 확인하여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관리자들의 오염물질 저감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황사 등 계절적 요인과 실내공기질의 상관관계와 함께 이용자 수와 특정 활동으로 인한 오염도 변화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K e c o o n e w s

폐기물감량 앞장서는 친환경기업에 도전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실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자 '2016년도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참여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5월 16일까지 이메일(3recycle@keco.or.kr) 또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우편주소 : (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공모 분야는 ① 사업장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②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총 2개 부문이며,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외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중소기업도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공모사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와 환경부의 심의를 거친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사례를 제출한 우수기업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환경부장관상 등의 표창과 함께 그에 따른 부상이 수여된다. '2016년도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 수상 기업은 8월 중으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발표한다. 시상식은 9월 중에 열리는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실시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이 제작돼 보급된다.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는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았으며, 기업의 폐기물 감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자원순환 선도기업은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으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사전 억제하거나,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 촉진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친환경기업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대학 만들기...그린캠퍼스 공모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 속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 그린캠퍼스 지원 대학을 3월 18일까지 공모했다. 공모결과는 4월 초에 발표한다.

2016년 그린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은 대학별 연간 4천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재정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실현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친환경 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매년 성과보고회를 통해 그린캠퍼스 우수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활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및 SNS를 활용한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친환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 소재한 모든 대학은 그린캠퍼스 신청이 가능하며 총 5곳을 선정한다. 신청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기후변화홍보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2011년~2015년 그린캠퍼스 공모를 통해 35개 대학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과 함께 대학의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통해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활동, 환경동아리 지원, 나눔 장터 및 바자회 개최 등 대학사회에 친환경 생활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 종료대학(2011년, 2012년 선정 15개교)의 지속적인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및 Post 그린캠퍼스 추진성과 보고회 등을 추진하고, 평가 우수대학은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신규대학 자문과 교육에 활용하여 선도대학의 노하우를 전파할 예정이다.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는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한국환경공단의 계간 매거진입니다.
자연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해 주세요.
재미있게 읽은 기사에 대한 리뷰나, 새로운 코너에 대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진 퍼즐을 맞춰라!

2016년 5월 20일까지 도착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sabo@keco.or.kr로 보내 주시면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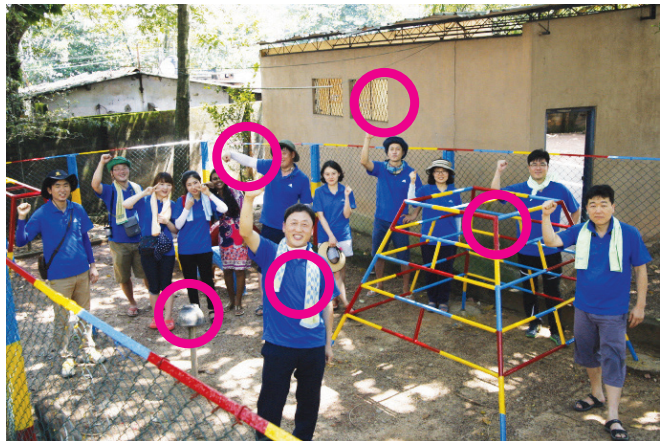
오른쪽 사진은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봄호에 실린 사진입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사진을 순서대로 맞춰 주세요.

- 1. 1-4-5-2-3-6
- 2. 1-6-5-3-2-4
- 3. 1-2-3-4-5-6
- 4. 3-1-4-5-2-6

지난호 엽서 당첨자!



- | | |
|-----|----------|
| 황원찬 | 부산시 북구 |
| 이현희 | 인천시 남동구 |
| 우향화 | 서울시 강남구 |
| 김동건 | 부산시 서구 |
| 이배선 | 부산시 사하구 |
| 김성익 | 충북 증평군 |
| 우수종 | 부산시 해운대구 |
| 이연희 | 서울시 성북구 |
| 길성경 | 의정부시 평화로 |
| 백귀혜 | 전남 장성군 |





January 호남권지역본부 지원순환처 제도운영팀 **김동섭 과장 장녀**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팀 **박용훈 사원**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팀 **박준구 사원**

February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팀 **김민혁 사원**
 기후대기본부 환경인증검사처 환경측정기검사업팀 **문선록 대리**
 홍보비서실 **김영기 실장 차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수도통합서비스센터 정선수도사업소 **이규원 차장 차녀**
 인재경영처 비상계획팀 **안남열 과장**
 환경에너지처 에너지 정책팀 **오진숙 대리**
 인재경영처 노사협력팀 **김은희 대리**
 호남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팀 **이민 사원**

March 물환경본부 상수도지원처 **강금배 차장 장남**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팀 **김정훈 사원**
 서부지역본부 환경시설처 **신기철 대리** ♥ 대기환경처 대기관제팀 **김성미 대리**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수도통합서비스센터 정선수도사업소 **최종강 사원 장녀**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환경분석팀 **최종인 사원**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팀 **정경일 차장 장녀**

April 약취관리센터 **이재훈 대리** ♥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관리팀 **진송이 사원**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분석팀 **이지혜 사원**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안전팀 **서기영 사원**

CONGRATULATION



January 약취관리센터 약취기술지원팀 **채창기 대리**
 분사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최보람 과장**

February 하수도지원처 관로정책지원팀 **이창환 과장**
 홍보비서실 홍보팀 **정혜린 대리**
 환경분석처 POPs관리팀 **조현경 사원**
 호남권지역본부 수질관리팀 **민원기 대리**

March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 **노은경 대리**
 상수도지원처 상수도지원팀 **김세훈 감독**
 제도운영처 부담금조사팀 **이동곤 대리**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팀 **송상영 사원**
 기획조정처 경영평가팀 **임부택 차장**
 수도통합서비스센터 정선수도사업소 **최일현 사원**

April 환경시설지원본부 환경에너지처 에너지정책팀 **윤성호 대리**



January 대기환경처 총량정책지원팀 **장승열 대리**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정책지원팀 **최옥현 대리**
 부울경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이만규 대리**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 **류보라 사원**

February 호남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팀 **최기형 대리**
 기후대기본부 환경인증검사처 남부측정기검사업팀 **김경훈 과장**
 대기환경처 대기측정망팀 **김승연 대리**

March 호남권지역본부 **정성하대리 & 이안순 사원**
 제도운영처 부담금조사팀 **이동곤 대리**

April 수질오염방제센터 수질오염상황팀 **김경환 대리 & 박현정 대리**
 약취기술센터 약취관리팀 **류승범 대리**
 인재경영처 인사팀 **이지환 과장**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신규 구독을 원할 경우, 신규 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름 신규 변경

주소



보내는 사람

자연가까이
사랑가까이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홍보팀 (자연가까이 사랑가까이) 담당자 앞

2 2 6 8 9

이번 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 또는 아쉬웠던 점과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 혹은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주세요.

자연가까이
사랑가까이

2016 SPRING
K eco VOL.24

여러분의 의견은 더욱 알찬
<자연가까이 사랑가까이>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반영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사항

개인정보 수집목적

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사보 배송
2. 독자엽서 당첨 상품 발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단은 사보 배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항목 : 이름, 주소
2. 선택항목 : 직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원탈퇴 및 사보 배송 거부 시까지입니다.

정보 주체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필수정보를 동의하지 않으면 사보 배송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선택항목의 경우에는 해당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원활한 사보 배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사고 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 파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필수항목 : 이름, 주소
 - 선택항목 : 직위
2. 정보의 이용목적 : 사보 배송 및 상품발송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배송거부 및 회원 탈퇴 시까지
4. 위탁업체 : (주)에스아이케이알
5. 거부권 및 불이익 :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필수정보의 경우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사보 배송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선택항목의 경우에는 해당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서명)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국환경공단은 종합환경서비스기관으로서
기후·대기, 물·토양, 자원순환, 환경보건까지
국민을 위한 최상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